



㈜해양에너지, 광주시에 돌봄이웃 성금 전달

㈜해양에너지는 최근 지역 내 돌봄이웃 지원을 위해 광주시장에서 돌봄이웃 성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광주시는 최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서비스 질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김진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홀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돌봄 가족이 없는 상황에 처한 돌봄이웃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 함께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췄다.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돌봄이웃들이 성금을 통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성금 1000만원은 임직원들의 만민기금 500만원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를 통해 후원금이 마련돼 임직원들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동신고 ‘우리학교 태권도 교실’ 우수학교

광주동신고가 2년 연속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우리학교 태권도 교실’ 운영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2023 우리학교 태권도 교실’ 사업에는 전국 18개 학교가 지원했고, 그중 동신고 등 5개 학교가 최종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동신고는 광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동신고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범 교사 역시 우수 사범으로 선정돼 태권도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신체 및 정서 발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로서의 성과를 보여줬다.

‘우리학교 태권도 교실’은 2020년부터 중·고등학생들에게 태권도 수련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태권도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체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도 사범과 태권도복 및 교육 용품을 지원한다. **최동환 기자**



광주도시공사, 위니아 협력업체 돕기 운동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대우위니아그룹 협력업체와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5대를 기탁했다. (사진)

광주도시공사는 27일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김치냉장고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우위니아 계열사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지원과 지역사회복지관의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김치냉장고는 지역사회복지관 5곳(시영·송광·금호·행복드림·농성)으로 각각 전달되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기부가 대우위니아그룹 사태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공기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김흥섭 엠에스테크 대표이사, 발전기금 기탁

김흥섭 엠에스테크㈜대표이사가 모교인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조선대는 김흥섭 엠에스테크㈜대표이사가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1984년 조선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코리아 제록스㈜광주지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2008년 전기공사와 태양광 설치공사를 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미래렌테크를 창업했다. 이후 2011년 엠에스테크㈜로 상호를 바꿨다.

김 대표이사는 2013년 12월 첫 기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총 1억660만원을 기탁했다.

김흥섭 대표이사는 “후배들에 도움이 되기 위해 꾸준히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인 기자**



광주시체육회, 대학부 우수선수 장학금 수여

광주시체육회는 27일 광주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대학부 우수선수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어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날 2024년을 대비해 동계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12개 종목, 79명 대학부 우수선수들을 대표해 안산(광주여대) 등 30여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 대상자는 항저우아시안게임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안산(광주여대)를 비롯해 종목별 전국체전 및 전국 규모 대회 입상 선수들이다. 장학금은 개인별 경기력과 대회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학업과 운동 두 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광주대표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도 노력한 만큼 광주를 빛낼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도시공사, 2024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가 기부문화 확산과 적십자회비 모금 장려를 위해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광주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과 공공건축 및 도시재생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공기기업이다. 기부된 특별회비는 이재민 구호활동 및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 등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지역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공기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12월 한달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

인사

광주시 ◇지방3급 △정원석(정책기획관) △손옥수(돌봄정책과장) ◇행정4급 △강신정(정책기획관) △남미선(자치행정과) △박윤원(신활력총괄관) △손명희(광주전략추진단) △신창호(감사위원회) △양혜숙(경제정책과) △장현정(안전정책관) △홍나순(문화정책관) △강은숙(사회복지, 돌봄정책과) ◇기술4급 △김일곤(토목, 물관리정책과) △김재중(토목, 신활력총괄관) ◇직위승진(부장) △강인숙(보건, 보건환경연구원) ◇행정5급 △고형주(감사위원회) △김미혜(기후대기정책과) △김병영(민주보훈과) △김영준(총무과) △김재연(신활력총괄관) △김종민(5·18민주과) △김주희(예산담당관) △박소민(정책기획관) △박창규(대변인) △양영순(총무과) △유병오(사회재난과) △유정훈(청년정책관) △이성호(총무과) △정영미(미래산업총괄관) △천윤남(이전개발과) △박기영(전산, 사회재난과) △이문진(전산, 로봇가전의료산업과) ◇사회복지5급

△김경명(돌봄정책과) ◇공업5급 △양명호(전기, 회계과) ◇환경5급 △박승열(환경보전과) △조효동(기후대기정책과) ◇시설5급 △박길현(토목, 도로과) △진일(토목, 민주보훈과) △조대양(토목, 도시철도건설본부) △전태엽(건축, 문화유산자원과) ◇방송통신5급 △박경수(사회재난과) ◇보건연구관 △김민지(보건환경연구원) △심성순(상수도사업본부) ◇학예연구관 △김민경(시립미술관)

신안군 ◇5급 승진 △병풍도관 리사무소장 서용락 △친환경농업과장 백인철 △비서실장 박수용 ◇5급 승진의결 △세무회계과 경리팀장 이진수 △교육복지과 교육지원팀장 강병순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장 김경훈 △고향사랑지원과(신안군복지재단) 김계형 △기획홍보실 감사팀장 박권일 △홍보팀장 박향란 △교육복지과 여성가족팀장 김민영

조선대학교 ◇보직 임명 △부총장 전제열(의과대학 교수)

마약 스캔들 2개월만 이선균 사망 충격

배우 이선균(48·사진)이 사망했다. 10월 마약 투약 내사 사실이 알려진 지 2개월여 만이다.

이선균은 배우 전해진(47)과 결혼해 두 아이를 뒀는데, 마약 스캔들에 휘말려 이미지 타격이 컸다. 더욱이 유형업소 여성 실장 A(29)와 연관됐을 뿐 아니라 그에게 협박을 받아 약 3억 5000만원을 뜯기는 등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추측됐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선균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근처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발견됐다. 측근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됐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선균은 올해 A의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피우거나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았다. 10월 20일 드라마 ‘노 웨이 아웃’ 촬영을 불과 이틀 앞두고 마약 내사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컸다. 결국 이선균은 하차했고, 조진웅이 경찰 ‘백중식’役に 대타로 투입됐다.

이선균은 A 등 2명에게 지속적인 공갈·협박 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다.

이선균은 간이 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저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0월28일과 지난달 4일에 이어 이날 24일 세 번째 경찰 소환조사를 마쳤다.

이선균은 줄곧 “마약인 줄 몰랐다. 수면제로 알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A는 “이선균이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을 흡입했다”며 구체적인 투약 날짜 5차례와 장소를 진술했다.

이선균은 3차 조사를 마친 후 “경찰에서 나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지 잘 판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청했다. 전날 인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사망해 안타까움을 줬다.

부인인 전해진 역시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2009년 7년 열애 끝에 결혼해 두 아들을 뒀으며, 연에게 대표 잉꼬부부로 꼽혔다. 부부는 지난해 5월 두 아들과 함께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1차전’ 서울 SK-안양 KGC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전혜진은 이선균의 마약 스캔들이 불거진 직후 둘째 아들 역시 유학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첫째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다.

전혜진은 지난달 드라마 ‘아임홈 다녀왔습니다’ 출연을 논의하는 등 활동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전혜진은 5월 서울 논현동 빌딩을 150억원에 팔았는데, ‘이번 사건을 대비해 판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이선균 측은 “건물 매각과 이번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영화 ‘탈출: PROJECT SILENCE’(감독 김태곤)과 ‘행복의 나라’(감독 추창민)는 고인 유작이 됐다. 이선균은 올해 9월 개봉한 영화 ‘잠’(감독 유재선)과 2월 막을 내린 SBS TV 드라마 ‘법쩐’에서도 활약했다. 이선균은이 사건으로 ‘SBS 연기대상’ 후보에는 들지 못했으나, 강유석, 장물 등 법쩐에 출연한 배우들은 참석할 예정이다.

29일 SBS 연기대상을 이틀 앞두고 비보가 전해져 안타까움은 배가 됐다.

뉴스

